

은혜와 진리소식

2023년 11월 5일 [매주발행] / 발행인 : 조용목

은혜와진리교회 www.gntc.net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안양로 193 ☎ (031)443-3731

· 수원시 팔달구 장다리로 314번길 3 ☎ (031)225-3731

· 안산시 화랑로 303 ☎ (031)486-3731

제1851호

1982년 8월 8일 창간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요 1:17)



(간증)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벧전 5:6,7)

- 이 경 화 -

저는 은혜와진리교회 유아부에서 남편과 함께 교사로 봉사하고 있습니다. 아직 걸음마도 떼지 못한 아기부터 기저귀 찬 작은 아이들, 그리고 아직 말이 서투른 아이들까지 모두 주님께서 얼마나 영롱하게 빛이 나게 하시고 잘 키워 주시는지 직접 체험하고 느끼는 부서입니다.

제가 어릴 때 부모님이 이웃에 사는 분의 전도로 주님을 영접하시고 저를 데리고 교회에 다니셨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엄마가 허리가 너무 아프다며 활동을 못하고 집안에 누워 계셨습니다. 너무 걱정이 된 저는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신다’는 믿음으로 교회로 가 아무도 없는 성전에 들어가서 엄마를 낫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그런 저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고 엄마가 자리에서 일어나게 해 주셨습니다. 그 후 저는 주님의 사랑을 듬뿍 받으며 주 안에서 행복하게 자랐습니다. 성인이 되어서는 빌립보 성가대에서 봉사하며 비교적 평안하고 무탈한 삶을 살았습니다.

29살에 결혼을 하였는데, 결혼 당시에 남편은 불신자였습니다. 그렇지만 저와 대화가 잘 통하고 또 마음이 부드럽고 온화하여 꼭 전도할 것을 결심하고 결혼을 하였습니다. 그런 저의 마음을 아시는 주님께서 저와 남편을 위해 주님과 여려 가지 아름답고 은혜로운 추억을 만들어 주시고 남편도 하나님을 신앙하는 생활을 하게 해 주셨습니다.

신혼생활을 하는 중에 남편이 회사에서 중요한 업무를 맡아 마산시로 발령을 받아서 저희 부부는 월말부부나 다름없이 지내게 되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남편이 그 프로젝트가 끝나면 아프리카의 가나로 발령이 날 수도 있다고 하였습니다. 제가 결혼한 지 2년이 되었어도 아이가 생기지 않아서 고민을 하고 또한 맞벌이를 하느라 매우 고된 생활을 하고 있던 차에 그런 남편의 말을 듣자 저는 절대 안 된다며 극구 만류하였습니다. 그러자 남편은 과감하게 회사를 그만 두었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1년 동안 구직활동을 하였으나 생각과 달리 마음에 맞는 새 직장을 구하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은 저에게 “괜찮은 기업이 한 군데 있는데, 꼭 그곳에 들어가 일을 하면 좋겠다”고 하였습니다. 그 회사에서 합격자를 발표하는 날, 저녁식사를 하던 남편이 식탁 옆으로 핸드폰을 꺼내서 만지작거렸습니다. 그리고는 그날 밤에 불합격한 사실을 말해주었습니다. 그 당시에 저는 알지 못했지만 남편이 여러 군데 입사 지원을 하였다가 다 실패하고 그 회사만 마지막 발표를 남겨둔 상황이었습니다. 남편은 구직활동을 하면서 혼자 무척 힘든 시간을 보내면서 여러 번 좌절을 하고 자신감이 많이 떨어진 상태였습니다.

남편의 답답한 마음을 달래 주려고 함께 하늘공원에 갔습니다. 예쁜 길을 걸으면서 남편에게 “우리가 기도가 부족했어요. 앞으로 더 열심히 하나님께 기도하기로 해요!”라고 했더니, 남편이 한참을 생각하더니 불신앙의 말을 하여 저를 깜짝 놀라게 했습니다. 저는 남편에게 “여보! 하나님이 하고자 하시면 내일이라도 당장 그 회사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세요. 그러니

하나님을 의심해서는 안 돼요.”라고 말해주었습니다.

다음날 제가 출근해서 회사에 있는데, 남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너무 소름이 돋아서, 빨리 당신한테 말해야 할 것 같았다’면서 방금 그 회사에서 연락이 왔는데 추가로 합격되었으니 바로 출근하라는 연락을 받았다고 하였습니다. 할렐루야! 기적과도 같은 일을, 하나님께서 섭리하시고 도와주신 은혜를 남편이 직접 체험한 것입니다. 남편을 생각할 때 합격 그 자체보다 더 감격스러운 일이었고 참으로 감사한 은혜요 복이었습니다.

남편의 회사가 아산시에 있어서 그곳으로 이사를 하였습니다. 지금은 그곳에도 우리 교회가 있지만, 당시 비성경적인 WCC 활동에 참여하거나 협력하는 교회가 여기저기 많아서 섬길 교회를 정하는데 신령한 지혜와 분별력이 필요했습니다. 하루는 교회를 찾다가 길을 잘못 들어 해매게 되었는데 어디선가 찬송 소리가 들려 그 소리를 따라 교회에 들어가 예배를 드렸습니다. 기도 시간에 눈물이 주체할 수 없이 흘러나왔습니다. 아기를 가지고 싶었지만 4년 가까이 생기지 않아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회개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을 앙망하며 아이를 갖게 해 달라고 눈물로 기도하였습니다. 그리고 바로 다음날 제가 임신한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새생명을 저희 부부에게 보내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토록 바라던 임신을 한 후 저희 부부는 예배와 성가대 봉사와 구역 모임을 통해 하루하루 믿음이 깊어지고 뱃속의 아기도 무럭무럭 잘 자랐습니다. 그런데 임신한지 두 달이 지날 즈음에 병원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2차 기형아 검사 수치가 5:1이라면서 정밀검사를 받아보라고 하였습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이번에는 남편이 저에게 믿음과 소망의 말로 위로해 주며 힘을 북돋워 주었습니다. “주님께 믿는다고 기도하면서 걱정해서는 안 되지 않느냐,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어떤 것인지 우리 부부가 보여줄 기회인 것 같다”고 하였습니다. 처한 상황이 어떻든 주님은 변함없이 저와 함께 해 주셨고 남편도 기도하면서 제 곁을 지켜주었습니다.

결과가 나오는 날 기다리는 1초가 마치 한 시간 같았던 그때 병원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정상입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은 또 하나의 사건을 통해 제가 주님을 신뢰함으로 기도로 맡기게 해 주셨고 주님을 더욱 더 사모하는 남편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건강한 첫째 아이를 출산하였습니다. 그리고 2년 후에 둘째를 임신하였습니다. 첫째를 낳을 때 어려운 과정을 겪으면서 마음 고생을 많이 한 터라 기쁘면서도 한편으로 염려가 되었습니다. 다행히 기형아 검사에서는 이상이 없었는데, 26주차에 정밀초음파검사를 받던 중 의사선생님이 아기의 오른쪽 턱 아래로 무엇인가가 있다고 하였습니다. 크기가 3cm센치 정도라며 큰 병원에 가보라고 하셨습니다.

대학병원에서 ‘림프관종’으로 의심된다며 제왕절개를 권유하였습니다. 그런데 검진받을 때마다 아기의 물혹이 4cm, 5cm, 6cm 크기로 점점 커졌습니다. 저는 매일 인터넷에서 비슷한 증상이 있는 아기들에 관한 정보를 검색하였습니다. 그러면서 더 걱정을 하고 두려워하였습니다. 그 틈을 사탄이 파고 들어 저에게서 삶의 기쁨을 앗아갔습니다. 기도하고는 돌아서서 다시 염려하고 근심하기를 반복하였습니다. 병원에서 말하기를 목에 발생한 림프관종으로 인해 아이가 태어난 후에 자가호흡을 못하면 뇌에 산소가 공급이 안 되기 때문에 호스를 삽입해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아이의 목 부분을 절개할 수도 있다고 하였습니다. 수술동의서에 서명을 마치고 교회로 가서 남편을 부둥켜안고 울고 또 울면서 하나님께 기도하였습니다.

수술하는 날이 되어 아침에 수술실에 들어간 저에게 마취를 담당하는 의사선생님이 수술실에 이렇게 많은 의료진이 들어온 것은 처음 보았다면서, 세 쌍둥이 제왕절개 수술을 할 때보다 더 많은 의료진이 수술에 참여한다면서 저를 안심시켜 주셨습니다. 하반신 마취였

기 때문에 저는 정신이 깨어 있어서 하나님께 제 입으로 기도하고 찬송할 수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나를 지켜 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이 우리 아가를 지켜 주시네!” 울지 않으려고 해도 자꾸 눈물이 나는 것은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산모분, 그렇게 자꾸 울면 호흡이 불안해져요”라고 옆에서 마취과 선생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아가, 제발 스스로 숨쉬거라” “아가, 제발 큰소리로 울어 주렴!”하고 말하는 순간 “아기가 나옵니다!” 하는 의사선생님의 말소리가 들리고, 이어서 “응애 응애 응애!” 제 아기의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아주 크게 들렸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기는 바로 중환자실로 옮겨졌고 저는 며칠 후 퇴원을 하고 산후조리원에 들어갔습니다. 병원에서 당장은 치료가 어렵고 아기가 4살이 되면 그때 치료를 시작하겠다고 하였습니다. “맘소사! 4살이라니, 그때까지 아기를 저렇게 둔 단 말인가?” 이때도 사탄은 ‘앞으로 네 아기는 건강하지 못하여 고통받고 놀림을 받으며 살 것’이라면서 주님을 원망하게 만들었습니다. ‘사람은 참 간사하구나. 아니, 나는 참 간사한 사람이구나!’ 조리원에서 울며 염려와 슬픔이 극에 달한 어느 날, 숨쉬기가 어려워 누구라도 빨리 와서 기도해 주기를 바랐습니다. 마침 기독교재단에서 운영하는 병원 조리원이어서 전화기 옆에 교목실 전화번호가 적혀 있었습니다. 망설이지 않고 전화를 했습니다. 전화를 받은 분이 두려움에 떨고 있는 저를 위해 기도해 주셨습니다.

그 후, 성경말씀을 굳게 붙들었습니다. 땅속으로 파고 들어갈 정도로 바짝 옅드려 하나님께 기도하였습니다. 말씀 묵상과 기도를 통해서 주님과 교제하는 시간이 많아졌고, 이 시간에 주님께서 저의 인간적인 교만을 철저히 깨뜨려 주셨습니다. 그리고 ‘내가 원해서 아이를 가진 것이 아니고 주님께서 선물로 주셨다’는 믿음을 갖게 해 주셨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위로와 평안이 제 심령에 충만하게 임하였습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맡긴다는 말의 의미를 깨달았습니다.

낮에는 찬송가를 들으며 성경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시간을 보내고, 저녁에는 퇴근한 남편과 아이의 질환과 관련된 의학논문을 찾아 읽으면서 치료 경험이 많은 의사선생님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보내주신 그 의사선생님의 집도로 아이가 2번에 걸친 수술을 받고, 이후에 치료가 잘 되어 첫돌이 될 무렵에 기적처럼 나왔습니다. 라파의 하나님께서 아이의 림프관종을 깨끗이 치료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참 좋으신 나의 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믿음이 부족하고 연약한 저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주셨습니다. 저의 두 아이가 바로 그 천사입니다. 이러한 역경을 통해 저희 부부가 굳센 믿음,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믿음을 갖게 해 주셨습니다. 우리 은혜와진리교회 성도님들의 뜨거운 기도, 유아부 선생님들의 합심 기도, 부모님과 동생을 비롯한 가족과 친지들의 기도 그리고 산후조리원에 계신 분들의 기도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제 곁에 늘 함께 하시며 치료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앞으로 그 누구보다 더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는 하나님의 딸, 주님의 큰 기쁨이 되는 하나님의 딸이 되어 전심전력 주님을 섬기다가 주님의 나라에 들어가고 싶습니다. 연약하고 허물이 많은 저를 끝까지 사랑해 주시는 주님을 아주 많이 사랑합니다. 은혜와진리교회에서 은혜로운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들으며 하루하루 신앙생활이 발전하고 성숙해지도록 이끌어 주시는 당회장 조 목사님의 사랑과 기도에 감사를 드립니다.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나니 나 밖에 신이 없느니라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나는 네 띠를 동일 것이요 해 뜨는 곳에서든지 지는 곳에서든지 나 밖에 다른 이가 없는 줄을 무리로 알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이사야서 45:5,6). 아멘!

구역공과

제1권 (제3단원 :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 (제21과) 구원의 길

- 본문 : 로마서 1:16-17
- 요절 :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롬 1:17)
- 찬송 : 182장(새찬송가 250장), 206장(새찬송가 284장)

전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는 어두움에 거하며 죄와 허물로 죽었던 자들이었습니다(엡 2:1-2). 자신의 욕심에 따라 지내며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것을 행하므로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습니다. 그러나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그 큰 사랑으로 인하여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습니다. 즉, 우리가 구원받게 된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그러면 이 공과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시하신 구원의 구체적인 방법에 대하여 상고해 보겠습니다.

1. 회개하는 자에게 구원의 길이 열려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며 발하신 첫 선포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왔느니라”(마 4:17)는 것이었습니다. 이 메시지는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나서 메시아의 오실 것을 예비하였던 세례 요한의 선포이기도 하였습니다. 이처럼 회개는 천국의 백성이 되기 위한 필수적인 요건입니다.

하나님은 죄는 미워하시지만 죄인은 긍휼히 여기십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아흔아홉을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눅 15:7)고 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자기가 죄인임을 깊이 자각하고 회개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길이 열려 있는 것입니다. 그 뿐 아니라, 회개는 구원과 더불어 성령을 선물로 받게 하는 은혜의 길이 됩니다.

세리장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난 후, 자기의 죄를 회개하고 자기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고 만일 누구의 것을 토색한 것이 있으면 그 사배를 갚겠다고 하였습니다. 이처럼 회개한 삭개오에게 예수님은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후, 유대인들에게 대하여 ‘너희가 십자가에 못박아 죽인 예수가 하나님의 독생자요, 그리스도’라고 외치자 많은 사람들이 마음에 찔림을 받고 “우리가 어찌할꼬?”라고 베드로에게 물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그들에게 한 말은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라는 것이었습니다.(행 2:36-38)

이와 같이 회개는 구원을 얻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조건입니다.

2.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구원의 길이 열려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요 14:6). 우리는 이 말씀에서 구원을 위한 유일한 길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이 세상의 풍습을 따라 우상을 섬김으로 멸망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혹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아도 자기가 윤리적인 선행이나 인격의 수양을 쌓음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사람은 자기의 의로움을 내세우고 하나님의 의로움을 받아들이기를 거부하는 자로서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게 되는 것입니다(요 3:36).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그의 긍휼로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하셨습니다(딤후 3:5).

성경은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에 구원을 얻을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행 4:12)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믿는 보다 구체적인 방법은 무엇이겠습니까? 이에 대하여 성경은,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롬 10:9,10)고 하였습니다.

3. 이제 구원을 얻은 사람은 믿음으로 살게 됩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은 사람은 더 이상 세상의 정욕대로 살아가지 않고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공의보다는 불의가 득세하며 의인이 악인에게 압제 당하는 사회상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호소하기를,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리이까? 내가 강포를 인하여 외쳐도 주께서 구원치 아니하시나이까”(합 1:2)라고 한탄하며 낙심할 때에 하나님은 그에게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의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니라 그러나 의인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합 2:4)고 위로와 소망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바울 사도도 당시의 유대 율법주의자들의 비복음적인 태도에 대하여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고 믿음을 통한 의인의 삶을 강조하였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인 된 사람들의 삶에는 어떤 변화가 생겨나는 것일까요?

첫째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며(요 1:12, 갈 3:26), 둘째로, 그리스도와 함께 세례를 받게 됨으로 예수님이 우리 속에 거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갈 3:27). 셋째로, 예수님 안에서 모두가 하나가 되어(갈 3:28) 약속대로 천국을 기쁨으로 받고, 하나님의 영적인 후사가 되는 것입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민족적인 차별이 없으며 빈부의 귀천, 지위의 고하를 막론하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주 안에서 하나가 됩니다.

복음에는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 있습니다. 이 의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뜻합니다. 따라서 의인 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길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음을 알아야 합니다.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께서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다”는 말씀(고전 1:30)처럼 우리가 예수 안에 있게 될 때에 구원을 얻을 뿐만 아니라 거룩한 의인의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 안양 : 안양시 만안구 안양로 193 T. 031-443-3731~2, 446-9184
- 수원 : 수원시팔달구 장다리로314번길3 T. 031-225-3731, 234-3732
- 안산 : 안산시 화랑로 303 (고잔동) T. 031-486-3731~2
- 과천 : 과천시 별양상가2로 41 (별양동) T. 02-502-3731
- 시흥 : 시흥시 신천로 44번안길 20-1 (신천동) T. 031-318-3731~2
- 광명 : 광명시 소하로109번길 13-18 T. 02-894-3731
- 부평 :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북로 237(청천동) T. 032-507-3731~2
- 부곡 : 의왕시 까치골1길 25 (삼동) T. 031-462-3731
- 판교 : 성남시 분당구 대왕판교로 335 T. 031-716-3743, 716-7832
- 영등포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양평로22다길 5 T. 02-2632-3731
- 산본 : 군포시 산본로323번길 10-18, 6층 T. 031-395-8227
- 인천 : 인천광역시 남동구 남동대로 712번길 9 T. 032-469-3742
- 부천 : 부천시 소사구 경인로3번길 6 (송내동) T. 032-652-3731~2

- 일산 : 고양시 일산동구 고양대로 866(중산동) T. 031-906-3731
- 시화 : 시흥시 서촌상가3길 17 (정왕동) T. 031-497-3732
- 영통 : 수원시 영통구 영통로 418 (영통동) T. 031-205-3732
- 구리 : 구리시 동구릉로 16번길6 (인창동) T. 031-567-3731
- 포일 : 의왕시 내손로 70-9 (내손동) T. 031-422-9200
- 전원 : 화성시 봉담읍 왕림2길 76 (세곡리) T. 031-298-3739
- 전원(수양관,본관) T. 031-227-5992~3, 227-3739
- 김포 : 김포시 청송로 4 (장기동) T. 031-985-3731~2
- 평택 : 평택시 정암로 126-19 (이충동) T. 031-662-3731
- 안중 : 평택시 안중읍 송담1로 144 T. 031-684-3731
- 천안 : 충남 천안시 동남구 유량로 144 T. 041-555-3731
- 전주(병화) : 전북 전주시 완산구 병화12길 8-2 T. 063-225-3731
- 양주 : 양주시 평화로1416번길 34-26 (덕계동) T. 031-863-3731
- 원주 : 강원도 원주시 판부면 오성마을길 30 T. 033-764-3735
- 강남 : 서울특별시 강남구 광평로 220 (수서동) T. 02-459-3731
- 장유 : 경남 김해시 덕정로12번길 39-11 (관동동) T. 055-312-3731
- 용인 : 용인시 처인구 명지로 37 (역북동) T. 031-337-0688
- 영종도 : 인천광역시 중구 햇내로48 (운서동) T. 032-751-3731

- 대전 : 대전광역시 유성구 원신동남로41번길30 T. 042-471-3736
- 광주 : 경기도 광주시오포읍 마루들길168 T. 031-763-3720
- 남양 : 화성시 시청로102번길 56 (남양리) T. 031-355-3729
- 대구 : 대구광역시 서구 평리로 278 (내당동) T. 053-522-3731
- 서산 : 충남 서산시 무석3로 11 (석림동) T. 041-667-3731
- 울진 : 수원시 장안구 하로로 55 (천천동) T. 031-271-3731
- 동탄 : 화성시 동탄공원로1길 26-71 T. 031-8015-3731
- 당진 : 충남 당진시 대호만로 123 (채운동) T. 041-353-3731
- 세종 : 세종특별자치시 남세종로420 (보람동) T. 044-862-3732
- 전주(효자) : 전북 전주시 완산구 신촌2길 32-5 T. 063-239-1004
- 인제 : 강원도 인제군 상남면 내린천로 2572 T. 033-463-1312
- 경주 : 경북 경주시 용담로 46-5 (황성동) T. 054-772-7867
- 아산 : 충남 아산시 염치읍 방현동길39번길 21-18 T. 041-534-3731~2
- 충주 : 충북 충주시 거룡1길 36 (용산동) T. 043-848-3731
- 진위(제2수양관) : 평택시 진위면 동부대로 30 T. 031-662-3731
- 산서 : 전북 장수군 산서면 성계로2 (쌍계리) T. 063-351-7518
- 진주 : 경남 진주시 금산면 중천로 8-7 T. 055-752-6675
- 온양 : 충남 아산시 청운로 180 T. 041-533-3731